

하산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

문혜원·주보림*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요약

포용의 자세는 하이브리드 미학을 추구하는 현시대에 요구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며, 최근 패션 산업에서도 인종차별 갈등으로 인해 다양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산 하자즈의 패션 사진을 대상으로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포용적 세계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의 관점에 집중하여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포용적 세계관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개념 접근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패션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피사체와 관련된 스토리와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포용의 쟁점들을 제시하며 현대 패션 사진의 사회적 가치의 표현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둔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전문 서적들을 통해 현시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포용적 세계관이라는 개념과 의미의 쓰임을 정리하였다. 검색을 통해 하자즈가 고국 사진을 찍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Hassan Hajjaj'와 'Photography'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미지, 논문, 저널, 매거진, 영상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고, 연작별 키워드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 및 시각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 연작 사진은 작가의 일관된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하자즈의 포용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패션 사진은 '케시 앤젤스', '마이 락스타즈', '보그, 더 아랍 이슈' 시리즈로 구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은 의미의 중첩, 스테레오타입의 파괴, 오브제의 재탄생으로 도출되었다. 하자즈의 패션 사진은 패셔너블한 캐릭터, 사물들이 중첩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경계를 넘고 뒤섞이는 포용의 공간으로, 경계가 없고 현대 아랍 문화의 시각적 내러티브를 제시하며 패션, 인간,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괴를 보여준다. 또한 패션 사진에 노출된 오브제들은 작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탄생된 것들이 주를 이루며, 포용적 세계관을 물리적 세계에서 시각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하산 하자즈, 포용적 세계관, 패션 사진, 패션 이미지

*교신저자: 주보림, brjoo@ewha.ac.kr

접수일: 2021년 5월 1일, 수정논문접수일: 2021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1일

I. 서론

최근 루이비통(Louis Vuitton), 구찌(Gucci),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공유하며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정면으로 의견을 내고 적극적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패션 기업들이 동시에 앞장서 개선의 의견을 밝혔고, 주요 부분 후보에 백인 중심의 인종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영화 아카데미상 또한 주류 영화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소수 인종 및 민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이 영화에 비중 있게 참여한다는 내용과 이를 반영한 포용 기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듯 백색 인종 중심의 문화를 벗어나 다양한 유색 인종 문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존재를 향한 포용의 자세는 현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패션 영역에서 포용의 개념을 언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에 대한 연구(Kim & Lee,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델의 다양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Kim, 2017), 대중문화에 나타난 다양성 중심의 어글리(ugly) 패션 사례 분석 연구(Park, 2020) 등으로 컬렉션이나 광고 캠페인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포용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패션 이미지로 제시하는 예술가 하산 하자즈(Hassan Hajjaj)의 작품에 주목하였다. 모로코(Morocco) 출신 아티스트로서 런던(London)으로 이주하여 2세대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하자즈의 예술 작품은 전 세계 곳곳의 패션 전시를 통해 포용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arrigan, 2018), 대영 박물관(The British Museum),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A), 구겐하임 아부다비(Guggenheim Abu Dhabi),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

술관(LACMA) 등을 비롯한 유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A Taste of Things to Come’의 주제로 전시가 개최되어 현재 인류가 맞이한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미래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보살피자는 포용적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패션 브랜드 타미 힐피거(Tommy Hilfiger)와 네덜란드 패션 브랜드 파타(Patta)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Diaspora)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블랙 화합을 상징하는 캡슐 컬렉션을 협업하였고, 하자즈는 캠페인 이미지를 작업하였다. 그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패션 연작 사진에 담은 포용적 세계관이 빛을 발하듯 다양한 브랜드, 매거진, 아티스트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작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패션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자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배경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그래픽디자인 연구자 Jónsdóttir(2017)의 사례분석 연구와 교차 문화적 표현에 대한 연구, 철학 분야 관련 Barbo(2015)의 예술 창작물의 의미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으며, 현대 중동 미술에서 포토몽타주의 부상에 대한 주제로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에 관해 서술한 큐레이터의 에세이(Das, n.d.) 등이 있다. 이들은 하자즈의 작품을 통해 이질적 문화 혼합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본 연구는 패션의 관점에 집중하여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포용적 세계관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개념 접근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패션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관이 표현된 패션 사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피사체와 관련된 스토리와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포용의 쟁점들을 제시한다. 이에 근거하여 현대 패션 사진의 사회적

가치의 표현 사례로써 하자즈의 작품을 고찰하고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 구축 방식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철학, 미술사학, 종교학 등의 기반으로 포용적 세계관이라는 의미의 쓰임과 개념을 수립하고, 연구 대상으로 수집된 사진 작품의 범위는 하자즈의 전 작품을 포괄한다. 즉, 모로코 여행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2000년을 기준으로 구글(<http://www.google.com>), 유튜브(<http://www.youtube.com>) 검색을 하고, ‘Hassan Hajjaj’와 ‘Photography’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미지 470개와 기사 220개, 저널, 매거진, 영상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신체 일부 장면만 촬영한 ‘다카 마라키아(Dakka Marrakchia)’, ‘레그(legs)’ 시리즈는 패션의 관점에서 포용적 세계관을 분석하기에 한정적인 이미지로 판단되어 제외하였고, 하자즈가 인터뷰에서 포용과 소통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대표작으로 언급하거나 전시 빈도수가 높은 이미지 위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영역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 포용적 해석에 집중하였다. 작가의 포용적 세계관이라는 물리적 개념이 시각화로 투영되는 하자즈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세계관을 연구하여 새로운 표현 특성으로 조명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II. 패션과 포용적 세계관

1. 포용적 세계관

독일에서 시작된 ‘세계관(weltanschauung)’의 개념은 19세기 말 서구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에 진출하여 1858년부터 영어 ‘worldview’로 기록되었다(Wolters, 1989). 세계관은 주로 철학이나 종교학에서 의미를 정의하는데, 철학 상담자 란 라하브(Ran

Lahav)는 세계관 해석(worldview interpretation)이 오늘날 새롭게 전개되는 철학 상담의 핵심이라고 말하였고(No, 2016), 이는 최근에 더욱 부각되는 세계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세계관은 단지 세계에 대한 지적인 인식으로 한정되지는 않으며, 근거로 하여금 사람들이 주위 세계에 대해 작용하는 실천적인 의의도 함께 가진다. 따라서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인간 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기계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 Rifkin(1990/2015)은 어떤 문화가 개발한 특정한 기술과 제도는 그 문화가 숙했던 특정한 에너지 환경을 비추주는 거울이라 지칭하면서, 어떤 문화의 세계관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주변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나면 그들의 세계관도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고 합리화하고 고무하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고 주장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n.d.)은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민족성, 전통, 교육, 운명 따위를 기반으로 하며, 낙천주의, 염세주의,宿命론, 종교적, 도덕적, 과학적 세계관 따위의 여러 견해가 있다고 세계관을 정의하였다. 포용적 세계관을 주요 개념으로 삼은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살펴본 세계관 개념과 구분에 근거하여 포용을 향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 세계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포용은 어원적으로 라틴어 ‘Tolerare’에서 유래했다. Oxford Learner’s Dictionaries(n.d.)에 따르면 포용은 어떤 것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용인하는 자질이다. Jung(2017)은 포용이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행위라고 말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 하였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는 포용의 정신과 관련하여 뿌리내리기(enracinement)

개념을 제시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 정신적 환경에 뿌리를 내려야 하며,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체를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 말했다(Lee, 2016).

앞서 세계관에 대한 개념을 보았을 때 사회에 대한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파악을 의미한다고 하여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포용에 대한 개념에서도 나와의 차이를 갖는 어떤 것의 전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포용적 세계관은 서로 다른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세계의 기원과 발전, 삶의 본질, 철학적, 자연과학적, 사회 정치적, 윤리적, 미적 견해 등에서 서로 다름의 차이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전에서 볼 때 세계관이 가치, 문화, 전통,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포용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와 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패션 사진과 포용적 세계관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자 Morris(1979)는 모든 옷은 그 옷을 착용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Park(2012)은 착장 행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인 패션은 개인의 사회 문화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패션 사진은 패션을 착장한 대상을 촬영하므로 결국 패션 사진이 표착하는 의미는 Morris(1979) 및 Park(2012)의 언급과 연결된다. 또한, Park and Ha(2015)는 패션 사진이 한 시대의 사회적 이념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진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패션 사진작가들은 단순히 패션만을 사진에 담은 재현의 역할을 넘어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기호, 가치관, 사회

적 지위와 계층 등을 포용하는 메시지를 담아 세계관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패션 사진은 형식에 따라 연속 사진(photo sequence), 연작 사진(photo series), 엮음 사진(photo story, photo essay)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Yang & Han, 2008) 세계관 전달의 측면으로 볼 때 사진의 연작과 엮음은 작가의 일관된 세계관 표현과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지각되는 사물의 깊이나 공간의 깊이와는 달리 패션 사진에서의 깊이는 평면 속에 나타난 색채와 형태,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 구현되며(Jo, 2006), 작가가 의도적으로 부여한 장치나 연출, 제작과정에서의 조작을 통해서도 관찰자에게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기도 한다. Beom and Yim(2017)은 20세기 중반 예술사진에 나타난 내러티브(narrative)는 대부분 사진 잡지의 포토 스토리나 포토 에세이라는 연속물 형태로 발전했으며, 연출 사진인 타블로 포토그래피(tableau photography)은 감상자가 그림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문화적 기능을 발휘해 사진 속 인물과 소품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스토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진이 어떤 내용을 담아내며, 형식과 시각적 표현 특성을 해석하고 의미가 있는가에 따라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패션 분야에서도 포용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패션 사진에서의 포용적 세계관이 점차 눈에 띈다.

에이치엔엠(H&M) 광고 <Figure 1>의 'Close the loop'는 패션 캠페인 영상을 통해 연령, 성별, 사이즈, 인종, 문화 및 정체성의 포용적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히잡을 착용하고 모로코의 유산을 가진 모델을 선정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였다(Komar, 2015). <Figure 2>는 베르사체(Versace) 캠페인 광고 사진의 일부분인데 포용성을 상징하는 직업이 다양한 54명의 모델을 선정하여 역대 최장 광고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의 포용적 세계관을 제시하였다(Day, 2018). <Figure 3>은 매거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사진작가인 타이러 미첼(Tyler Mitchell)이



Figure 1. H&M 'Close the loop'.
From Komar. (2015).
<http://www.bustle.com>



Figure 2. Versace fall-winter
2018 campaign.
From Day. (2018).
<http://www.vogue.com>



Figure 3. Tyler Mitchell.
From Goodman. (2018).
<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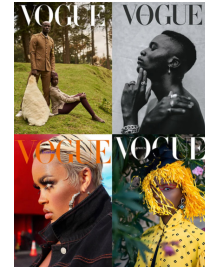


Figure 4. The #VogueChallenge
is more than a hashtag.
From Okwodu. (2020).
<http://www.vogue.com>

촬영한 매거진 커버이다. 패션 사진을 통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그릴 기회가 있으며,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종, 민족, 관계, 문화적 포용적 메시지를 표현하였다(Goodman, 2018). <Figure 4>는 '#Voguechallenge'를 통해 패션 매거진이 시도해 보지 못한 표지와 주제,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 속에는 성별, 인종, 연령, 사이즈, 문화 등의 차이가 눈에 띄며, 차이를 갖는 다양한 대상들이 함께 존중된 화면이 포착된다. 이렇듯 현재 패션 산업에서 주목하는 포용적 세계관의 표출은 패션 사진을 통해 다수 드러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하자즈의 연작 사진 역시 현대 패션의 포용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패션 사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III. 하산 하자즈의 연작별 패션 사진

하자즈는 아랍 사회를 배경으로 화려한 북아프리카 패션을 강조한 인물 사진을 찍는 아티스트이다. 국내 전시용 도록 『A Taste of Things to Come』에서는 하자즈가 태어난 모로코를 일컬어 서구의 유명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의 지사들이 자리를

잡고 패션 산업에 필수적인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교차하는 모로코의 지정학적 위치처럼 고급 예술과 스트리트 컬처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하자즈의 매력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ch)와 영국 런던을 오가며 활동하는 하자즈는 대영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The British Museum)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뮤지엄에서 그의 작품 컬렉션을 보유할 정도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한편 그의 사진이 빠르게 진화하는 하위문화의 시각적 요소를 재구성하는 대중 문화에 뿌리를 두었으므로 '모로코의 앤디 워홀(Andy Warhol)'이라 불리기도 한다(Hight, n.d.). 특히 패션 사진으로서의 시각적 어휘들을 사용하며(Tzenkova, n.d.) 패션 전시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진 전반에 나타난 강렬한 패션 요소들을 중심으로 연작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자즈의 다양한 연작은 다음과 같이 모로코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한 '케시 엔젤스(Kesh Angels)', 하자즈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캐릭터들의 강인함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마이 락스타즈(My Rock Stars)', 패션 매거진에서의 문화 표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그, 더 아랍 이슈(Vogue, the Arab Issue)'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자즈는 주로 인식의 차이나 서로 다른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것들을 한 프레임 안에서 조화롭게 표현되는

이미지를 통해 포용적 세계관을 전달한다. 각 연작별로 작가가 포용적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작으로 언급하거나 전시 빈도수가 높은 작품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구도, 시선, 의상, 컬러, 소품, 프레임 등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케시 앤젤스

2000년부터 시작된 케시 앤젤스 연작은 하자즈의 대표 시리즈로서 손꼽힌다. 작품 시리즈명의 ‘Kesh’는 ‘Marrakech’의 약자이며, 오토바이 폭주족을 뜻하는 ‘Hells Angels’에서 영감을 받은 주제이다. 마라케시의 여성 바이커 하위문화를 패션 사진으로 포착하고, 종교 때문에 바이크를 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아랍 여성에 대한 서구적 관점의 오해를 다룬 작업이다. 현재까지도 연작이 이어지고 있으며 2014년 테이모어 그란 갤러리(Taymour Grahne Gallery), 2018년 서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 2019년 뉴 아트 익스체인지(New Art Exchange) 등에서 전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케시 앤젤스 연작에서 하자즈의 포용적 세계관이 담긴 패션 사진 선정 기준을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전통의상을 입고 바이크를 탄 채 당당한 포즈와 시선을 취하고 있는 모습, 아랍 전통 아이템과 하이엔드(high-end)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아이템이 혼재된 모습이 담긴 이미지로 삼았다.

<Figure 5>, <Figure 6>은 시리즈 중 초창기 작품에 해당한다. 비교적 차분한 무채색 컬러의 밀리터리나 도트 무늬의 히잡(Hijab)을 쓴 여인들이 모로코의 좁은 골목길을 배경 삼아 오토바이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랍 여성을 떠올릴 때 신체 노출을 피하는 전통의상을 착용한 모습을 떠올리고 이에 대해 여성의 자유 억압을 논하곤 하는데, 사진 속에서는 남성적이라 인식되는 밀리터리 패턴이나 바이크에 기댄 역동적인 포즈로 아랍 여성의 당당함을 표현하였다. 하자즈는 아랍 문화와 현대의 소비주의를 도상학으로 풀어내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통 문화적 요소의 의미와 해석은 아랍의 전통 아이템과 루이비통이나 구찌, 나이키와 같은 서양 브랜드의 오버레이를 통해 정체성과 내러티브를 표현한다(Wagenseil, 2020). 구찌 로고가 선명한 시스루(see through) 스카프 속에 입술이 비치는 여성(Figure 6), 모로코의 신발 바부쉬(Babouche)에 나이키 로고를 새기거나(Figure 7) 후드형 젤라바(Djellaba)에 나이키 로고 스카프를 착용한 여성들(Figure 8)의 사진 속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모방한 특정 디테일은 현대 문화 및 소비주의에 대한 영향과 모로코 전통의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하자즈는 자신의 사진 속에 있는 히잡과 같은 전통 의상 아이템에 대하여 전통과 패션을 혼합하기 위함이지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로 두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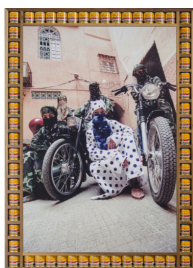


Figure 5. 『Gang of Kesh part 2』, 2000.
From Gang of Kesh part 2. (n.d.).
<http://collections.lacma.org>



Figure 6. 『Malicious look』, 2000.
From Malicious Look. (n.d.).
<http://www.mutualart.com>



Figure 7. 『Football』, 2006.
From Jackman & Kane. (2017).
<http://www.dazeddigi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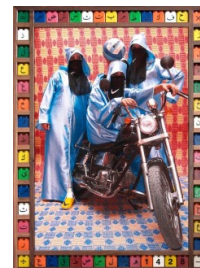


Figure 8. 『Nike rider』, 2007.
From Wender. (2014).
<http://www.newyorker.com>

아니라고 설명했다(Highet, n.d.). 또한 케시 앤젤스 시리즈를 작업하면서 문득 아랍 쿠티르(couture) 인형이 없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모로코 마라케시의 패션 디자이너 아민 벤드리우이치(Amine Bendriouich)와 협력하여 전통의상을 입고 바이크를 타는 모로코 여성을 모티브로 모로칸 바이커 바비인형(Moroccan biker Barbie dolls)을 <Figure 9>와 같이 출시하였다.

<Figure 10>은 모두 나란히 서 있는 여성들은 비밀스럽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주적이고 대담한 자세를 취한 채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촬영 구도는 당당하고 활기찬 인물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는 아랍문화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풍자하기도 한다. <Figure 11>은 카사블랑카(Casablanca) 축구팀 위다드 AC(Wydad AC)의 스카프로 제작한 길고 혈렁한 로브인 젤라바가 보이며 화이트와 레드의 컬러 대비와 기하학 패턴이 특징이다. 스포츠의 활기찬 에너지와 스트리트 패션의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Figure 12>는 여성의 당당함을 표현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걸터앉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려한 무늬의 낙낙하고 소매가 긴 카프탄(caftan) 드레스는 사진 속 인물들 소유의 의상이다. 카프탄 드레스나 히잡과 같이 아랍 전통 아이템과 선글라스, 브랜드 로고 패턴을 차용한 의상 등 서구 아이템이 혼종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문화의 질서와 양식을 생성하는 하자즈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준비한 소품은 전통 시장 메디나(Medina)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양말과 하트모양의 선글라스였는데, 이는 주로 바이커들을 연상할 때 가죽 재킷을 입는다는 진부함을 피하고자 소품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다(Sawa, 2018). 작품에서 줄곧 사용되는 화려한 컬러 매치를 강조하는 프레임은 아랍 현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 토마토 스프 캔, 스팸 캔, 콜라 캔, 자동차 왁스, 치킨 스톱 패키지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적인 오리엔탈 패턴과 피사체를 강조한다(Smith, 2014). 프레임에 결합된 제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모로코의 모자이크 패턴과 타일을 작가 고유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이 작업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모델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고 반복적인 배열을 통해 모로코의 모자이크 패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유머러스함을 반영하기도 한다. 하자즈는 아랍 사회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대한 시각적인 반론을 제시하며, 아프리카의 브랜딩 및 문화적 전유에 대한 메시지를 콜라버레이션 제품 출시와 패션 사진 전시를 통해 표현하였다(Jackman & Kane, 2017). 이처럼 케시 앤젤스 시리즈는 아프리카 및 아랍 여성에 대한 선입견 탈피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의상과 소품을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문화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



Figure 9. 『Eastern dalls』, 2006.
From Jackman & Kane. (2017).
<http://www.dazeddigital.com>



Figure 10. 『Kesh angels』, 2010.
From Sawa. (2018).
<http://www.theguardi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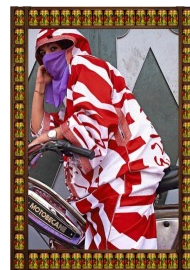


Figure 11. 『Brown eyes』, 2010.
From Brown Eyes. (n.d.).
<http://www.artsy.net>



Figure 12. 『Gypzee Bikin』, 2018.
From Gypzee Bikin. (n.d.).
<http://www.artsy.net>

선과 구도를 담은 포용적 세계관을 패션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다.

2. 마이 락스타즈

마이 락스타즈 연작은 마라케시, 런던, 파리, 두바이 등 세계 각지에서 팝업 사진 스튜디오를 열면서 만난 사람들을 촬영한 패션 사진이다(Lord, 2012). 하자즈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타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의 형상을 담았다. 이 시리즈는 초상화와 패션 사진의 모호한 경계에 있으며 공식적인 스튜디오를 두지 않았다. 대신 각 나라를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광이 있는 길거리를 촬영 공간으로 선정한다. 일반적 락스타의 이미지는 화려한 조명 아래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하자즈는 이러한 편견을 탈피하고 인기, 지위, 경제력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표현한다. 이 시리즈는 2012년 더 서드 라인 갤러리(The Third Line Gallery) 전시를 시작으로, 2014년 구스포드(Gusford), 2019년 메종 마호켄느(Maison Marocaine) 등에서 전시되며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이 락스타즈 연작에서 포용적 세계관이 담긴 패션 사진 선정 기준을 타국에서 생활하는 아랍 출신의 인물들이 아랍 전통 패션 착용한 모습, 인물이 가

진 여러 직업들이 혼재된 의미가 담긴 패션을 착용한 모습,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인식을 탈피하고자 한 메시지가 담긴 아이템을 착용한 이미지로 삼았다.

시리즈 중 아랍 출신 보컬리스트 마르케스 톨리버(Marques Toliver)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 <Figure 13>은 그라피티(graffiti)가 화려한 배경과 모로코 패턴의 매트 위에 대비되는 그린 컬러의 스트라이프 의상을 입은 톨리버가 길거리에 앉아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이며, 거리에서 연주자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촬영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닥 위에 놓인 모자 속에 동전 대신 선글라스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통해 하자즈의 유머러스한 표현 방식이 돋보인다. 다음 해 작업 <Figure 14>는 앞서 같은 스타일의 스트라이프 재킷이지만 컬러의 변화를 주었고, 벽과 바닥을 카펫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벽면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정자세로 서서 연주에 몰두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2년 뒤 <Figure 15>에서는 의상과 모자, 양말에서 보이는 화려한 패턴, 모로코식 카펫 컬러를 일치시켰으며 신발 없이 양말만 신은 채 다리를 꼬고 있는 포즈가 돋보인다. 앞의 사진에서는 모로코 카펫의 패턴으로 프레임의 질감을 표현하였고, 이후에는 화이트 목재 프레임에 모로코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였다. <Figure 16>은 페타이어를 잘라 페인팅한 후 프레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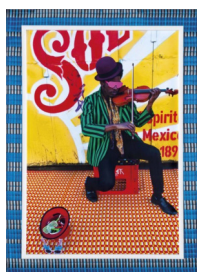


Figure 13. 『Marques Toliver』, 2009.
From Marques Toliver, (n.d.).
<http://www.artsy.net>



Figure 14. 『Mr. Toliver』, 2010.
From Hassan Hajjaj: My Rock Stars, (n.d.).
<http://www.worcesterart.org>



Figure 15. 『Mr M. Toliver』, 2013
From Rao, (2017).
<http://www.huffpost.com>



Figure 16. 『Keziah Jones』, 2011.
From "Hassan Hajjaj's rockstar", (2012).
<http://www.theguardian.com>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하자즈가 패션 사진이 돋보일 수 있는 부조감과 질감의 변화를 주기 위해 작업 프레임의 형태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 의상들은 촬영하기 전에 직접 시장에서 원단을 구입한 뒤 재단사를 통해 모델이 가진 스토리나 콘셉트에 맞게 제작한다(Mitter, 2019). <Figure 17>은 핑크색 모로코 슬리퍼와 다즈(Daz) 세제 운반용 자루로 만든 슈트를 입은 알제리 가수 라시드 타하(Rachid Taha)이다. 모로코 전통문양 패턴이 새겨진 그린 컬러의 카펫과 유사 컬러의 통조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프레임이 슈트와 컬러 대조를 이루며, 타하의 키치(kitsch)한 표정과 유머러스한 포즈로 인해 활기가 넘치는 사진이다. <Figure 18>은 가수 비너스 부쉬 파이어스(Venus Bushfires)를 찍은 사진이며, 노래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타악기 행(hang)을 연주한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지구를 연결하려는 열망을 헤어스타일로 표현하며 터번을 과장된 형태로 두른 모습이다. 신체를 드러내는 원피스를 통해 억압이 아닌 자유로움을 표현하였고, 부르카(Burka)나 니캅(Niqab)과 같은 아랍 전통의상을 변형하였고 문양을 넣어 도상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신발은 구찌 문양이 새겨진 바부쉬를 신고 있으며, 한 손으로 행을 들고, 허리에 손을 얹은 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Figure 19>는 아프리카 포토그

래퍼 말릭 시디베(Malik Sidibe)의 사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진이다. 아프로 브라질리언 댄서 겸 무예가 라일린(Rilene)의 역동적 포즈로 표현하였으며 경쾌한 컬러의 패턴이 담긴 의상과 에너지 넘치는 포즈를 통해 무한한 낙관주의를 표현한 작업물이다.

하자즈는 소문이나 비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을 패션 사진으로 표현하는데(Marszalek, 2020), 남성 댄서 사진 <Figure 20>이 여기에 해당한다. 남성이지만 댄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드레스와 베일을 쓰고 당당하게 춤을 추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Figure 21>은 『The Fall』 매거진에 실렸으며 ‘Dandy Lion: The Black Dandy and Street Style’ 기획 전시에도 작품이 전시되었다. 계급, 갱, 살인, 폭력 등 흑인 남성에게 대한 과포화된 인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블랙 댄디(black dandy)의 재탄생과 진화에 대한 메시지를 의상의 프린트로 표현하였다. 타국가의 지폐가 프린팅된 바부쉬를 한쪽은 신고, 다른 한쪽은 모로코 패턴이 프린팅된 스틀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바부쉬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Figure 22>는 모로코 출신 가수 알로 왈라(Alo Wala)이며, 터번을 꼬아 두른 듯한 헤어에 모로코의 빛과 색상으로 담았으며 고개를 들고 앉은 모습에서 여성의 당당함을 표현한다. 프레임에 반복적으로 배치된 아랍 통조림 디바 올리바(Diva Oliva)는 뛰어난 여가수



Figure 17. 『Rachid Taha』, 2011.
From Mitter. (2019).
<http://www.nytimes.com>



Figure 18. 『V.B.F.』, 2013.
From Rao. (2017).
<http://www.huffpost.com>



Figure 19. 『Rilene』, 2013.
From Mitter. (2019).
<http://www.nytim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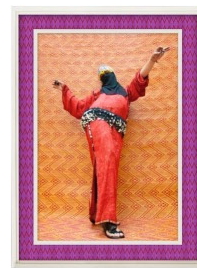


Figure 20. 『Man bellydancer』, 2012.
From "Hassan Hajjaj's rockstar". (2012).
<http://www.theguardian.com>



Figure 21. 『Blaize』,
2015.
From "Dandy Liom". (2017).
<http://thefallma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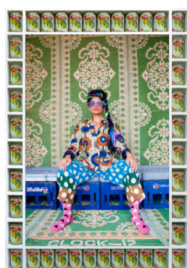


Figure 22. 『Alo Wala』,
2015.
From "Morocco a-go-go". (2019).
<http://www.theguardian.com>



Figure 23. 『Lynette Yiadom
Boakye』, 2017.
From Baker. (2019).
<http://www.creativeboom.com>



Figure 24. 『Sunglasses cabinet』,
2017.
From "Hassan Hajjaj on Art". (n.d.).
<http://artbreath.weebly.com>

‘Diva’를 뜻하기도 하고, 디바 올리바 라는 어휘 라임의 반복 사용으로 음악의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23>은 화가 르네 이아돔-보키(Lynette Yiadom-Boakye)의 모습이다. 그는 주로 흑인 인물을 그리며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화가로서 단조로운 컬러와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지만 하자즈의 카메라 앞에서는 활기차고 대담한 패턴과 컬러 앞에 서서 본인의 작품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캐릭터를 보여준다. <Figure 24>는 하자즈가 가장 즐겨 활용하는 소품인 선글라스를 모아 찍은 사진이다. 이는 양말 캐비닛, 모자 캐비닛과 함께 전시하였다. 하자즈는 서구적인 패션 아이템이면서도 아랍의 전통 시장에서 구입한 다채로운 형태, 컬러, 크기의 선글라스를 선택하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아랍 출신 모델들이 착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격차가 없는 포용과 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3. 보그, 더 아랍 이슈

보그, 더 아랍 이슈 시리즈는 타 문화권 사람들이 갖는 아랍 여성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아랍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에 대한 메시지를 패션 사진으로 전달한다. 1990년대 마라케시에서 『Elle』 매거진의 촬영 과정이 이 시리즈에 대한 아이디어의 시초가 되었다(Sansom, 2019). 하자즈는 매거진 촬영 당시 마라케시에서 이루어진 촬영임에도 불

구하고 모델, 사진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관련자 중 북아프리카와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매거진 시리즈로 아랍 지역의 모델과 함께 디자인, 문화적 맥락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Vogue, The Arab Issue, 2020). 이 시리즈는 2019년 유럽 사진 미술관(Maison Europeenne de la Photographie) 전시에 이어 2020년 스톡홀름(Stockholm) 사진 미술관(Fotografiska) 등에서 전시되었다. 본 연구는 보그, 더 아랍 이슈 연작에서 포용적 세계관이 담긴 패션 사진 선정 기준을 매거진에서 아랍 여성을 채용하거나 아랍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모습, 매거진에서 하자즈와 협업을 통해 아랍 출신 여성 모델을 메인 커버에 기용하거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을 선정하여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미지, 각종 매거진들과 협업을 통해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해서 작업한 이미지로 삼았다.

<Figure 25>는 마라케시와 카사블랑카의 메디나에서 백인 여성 모델만을 기용하여 촬영하는 하이 패션 사진에 대해 역설적으로 반응한 사진이다(“Morocco a-go-go”, 2019). <Figure 26>은 카프탄 드레스를 입은 두 명의 모로코 여성이 등장한다. 값싼 플라스틱 재질로 우스꽝스러운 날개가 달린 선글라스를 쓴 채 펩시(Pepsi)와 코카콜라(Coca Cola) 병을 사이에 두고 매거진 보그와 엘르를 읽고 있



Figure 25. 『LV Posse』, 2000.
From "Morocco a-go-go". (2019).
<http://www.theguardian.com>



Figure 26. 『Time out』, 2007.
From Mitter. (2019).
<http://www.nytimes.com>



Figure 27. 『Dior X』, 2012 .
From "Hassan Hajjaj Dior". (2020).
<http://news.cision.com>



Figure 28. Newyork magazine cover.
From Hammoudi. (2017).
<http://news.artnet.com>

다(Highet, n.d). 하자즈는 이중성과 모호함과 같은 문제에 대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문화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혼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표현한다. <Figure 27>은 런던의 엘리트 본드 스트리트(Elite Bond Street)에 있는 디올(Dior) 매장 앞에서 아랍 전통 패션을 입은 채 마네킹 포즈를 모방하며 당당함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Highet, n.d).

하자즈의 보그, 더 아랍 이슈 시리즈의 메시지가 빛을 발하는 듯 이후 하자즈의 매거진 관련 촬영 시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2017년 3월, 『Vogue Arabia』가 창간되었고, 이후 아랍 여성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성의 역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업적과 재능에 대한 창구 역할도 한다(Gouveia, 2020). 같은 해 11월에 하자즈는 매거진 『Newyork』 커버 촬영을 기점으로 힙합 뮤지션인 카디비(Cardi B)를 촬영하며 매거진과의 협업 작업을 시작하였다(Figure 28).

2020년 3월에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하는 『Vogue Arabia』가 영향력이 있으며 긍정적인 삶을 사는 여성 세 명을 선정하였고, 하자즈가 세 가지 버전으로 커버를 촬영하였다. 모델 셰िका 후르(Sheika Hoor)는 발렌시아가(Balenciaga) 블라우스 위에 모로코 시장에서 판매하는 담요를 두르고 하자즈의 브랜드인 앤디 월루(Andy Wahloo)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며, 전통 스타일과 현대의 스타일 융합을 패션 사진으로 보여준다(Figure 29). 『Vogue US』에서도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를 모델로 하여 하자즈가 커버 촬영을 진행했다. <Figure 30>은 앤디 월루 커스텀 재킷과 셔츠, 선글라스, 하자즈와 아일리시 이름이 새겨진 반지를 착용하였으며, 프레임에는 하자즈의 티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쉐인 컬러를 아일리시의 시그니처(signature) 슬라임 그린(slime green) 컬러로 맞추어 아일리시의 정체성을 하자즈의 표현 방식으로 담았다.

『Vanity fair』 매거진 2020년 4월호를 위해서는



Figure 29. 『Sheikha Hoor』.
From Gouveia. (2020).
<http://en.vogu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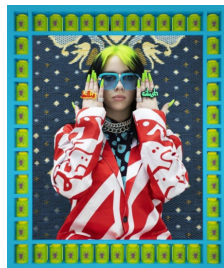


Figure 30. 『Living color』.
From Haskell. (2020).
<http://www.vogue.com>



Figure 31. 『Mashmello』.
From Reginato. (2020).
<http://www.vanityfai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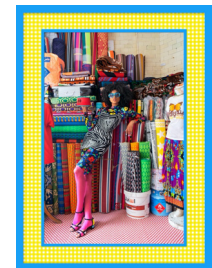


Figure 32. 『Imaan Hammam』.
From Farah. (2020).
<http://www.vanityfair.com>

Table 1. 하산 하자즈의 연작별 패션 사진에 나타난 특징과 포용적 세계관.

연작 사진	패션 사진의 특징	포용적 세계관이 표현된 도구
케시 앤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과 북아프리카 문화가 공존하는 모로코 마라케시 여성들의 바이커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한 패션 사진 시리즈 •아랍 여성에 대한 서구적 관점의 오해를 다루며 비밀스럽고 수동적일 것 같은 시선에 대한 편견을 풍자 •아랍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모로코의 모자이크 패턴을 연상시키고 모델과 연관된 상품명을 통해 유머러스함 반영 •아랍 사회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시각적인 반론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도: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한 모델을 아래에서 위로 촬영 •시선: 바이크를 타는 아랍 여성들을 촬영 •의상: 아랍 전통 아이템에 서구 패션 브랜드의 패턴을 차용하여 현대의 소비주의를 도상학으로 표현 •컬러: 화려한 무늬와 다채로운 컬러 사용 •소품: 밀리터리 패턴이 그려진 히잡, 브랜드 로고가 프린트된 시스루 스카프와 바부쉬 •프레임: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제품 패키지를 반복적으로 배열
마이 락스타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락스타 이미지에 대한 편견 탈피하며, 타지에서 개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로코 출신의 인물들의 형상을 기록한 시리즈 •소문이나 비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을 패션 사진으로 표현 •흑인 남성에 대한 과포화된 인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메시지가 프린트된 의상을 하자즈가 직접 제작하여 촬영 •아랍 전통 아이템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랍 출신의 모델들이 착용함으로써 문화의 격차가 없는 포용과 융합의 메시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도: 역동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포즈 촬영 •시선: 타지에서 살고 있는 모로코 출신 인물들을 촬영 •의상: 여성복을 입은 남성, 신체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여성, 메시지를 담은 의상 •컬러: 대담한 패턴과 컬러 사용 •소품: 과장된 형태로 두른 터번, 전통 시장에서 구입한 선글라스와 양말 착용 •프레임: 모델과 연관된 제품의 상표를 반복적으로 배열
보그, 더 아랍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랍 여성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고유 전통과 아랍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 메시지를 패션 사진으로 전달하는 시리즈 •백인 여성 모델만을 기용하여 촬영하는 하이패션 사진에 대해 역설적으로 반응한 사진 촬영 •젠더, 문화, 인종, 민족, 자본, 다문화 현상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한 촬영을 지속적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도: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한 모델을 아래에서 위로 촬영 •시선: 아랍 여성 의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하이패션 사진에 대해 역설적으로 촬영 •의상: 아랍 전통의상과 하이패션 브랜드 의상을 혼재 •컬러: 화려하고 다채로운 패턴과 컬러 사용 •소품: 펍시와 코카콜라, 보그와 엘르, 하이패션 브랜드 의상과 전통 시장에서 판매하는 소품 •프레임: 소품을 반복적으로 배열

‘Spin Doctor’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DJ 10인을 선정하여 작업하였다(Reginato, 2020). <Figure 31>은 『Forbes』 선정 DJ 마시멜로우(Marshmello)이다. 사진 속 마시멜로우의 소매에 루이비통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고, 소매의 레드 줄무늬와 모로코 카펫의 레드 줄무늬가 통일감을 보인다. 크고 작은 도트 문양이 찍힌 팬츠의 컬러가 대조를 이루며 DJ의 리듬감 있는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프레임에는 하자즈 브랜드 패키지를 사용하여 마시멜로우의 헬멧에 새겨진 표정과 유사한 모양의 형태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 <Figure 32>는 『Vanity fair』 2020년 10월호에서 아랍계 슈퍼모델 이만 함만(Imaan Hammam)과 하자즈의 패턴 플레이를 작업한 사진의 일부이다. 이

렇듯 하자즈는 젠더(gender), 문화, 인종, 민족, 자본, 다문화 현상 등을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며,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작업을 통해 정체성,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함축하여 하자즈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IV. 하산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

1. 의미의 중첩

하자즈는 패션 사진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옛것과 새것, 유럽과 아프리카, 인물과 사물 등 대조적 의미를 중첩해 새로운 차원을 포용하는 세계를 만

든다. 이 공간 안에서는 국가, 국경, 민족, 문화, 젠더, 직업 등의 여러 차원들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삶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하자즈는 가장 기본이 될 만한 본연의 의미 이외의 의미를 쌓아가는 중첩의 방식을 사용하며 그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으로서 의미의 중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자즈는 옛것과 새것의 의미를 중첩한다. 모로코를 여행하면서 오래된 책 표지, 포스터, 성냥, 비누, 강통, 통조림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일상적인 물건들을 강박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사진 속 패션이나 프레임에 사용하였다. 브랜드 로고가 찍힌 제품은 꾸준히 이어온 브랜드의 고유 이미지로 인해 옛것과 새것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로고나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제품이 가진 의미와 쓰임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 (Hammoudi, 2017). 이러한 의미의 중첩을 활용하여 전통 스타일과 현대 스타일의 융합이 포용을 통해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패션 사진을 통해 보여준다.

둘째, 유럽과 아프리카의 의미를 중첩한다.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서 모델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신발인 바부쉬는 현지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로코의 전통 신발이다. 바부쉬에 서양 브랜드인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 로고를 결합한 형태는 모로코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서양 패션 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북아프리카 문화와 유럽 문화가 혼종적으로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모로코 전통 상품에 타 국가의 상품이나 이미지를 중첩해 국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며 여러 문화와 소비를 포용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셋째, 인물과 사물의 고유 역할이 가진 의미를 중첩한다. 패션 사진과 초상화의 경계에 있는 작업들은 북아프리카의 강렬하고 리드미컬한 색채와 패턴이 새겨진 의상과 액세서리, 개성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로코 출신의 모델의 에너지, 표정, 태도, 모로코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음료, 통조림, 장난감, 재활용 타이어, 비누, 성냥갑 등 소품들을 사진 프레임 위에 배치하여 작품의 질감을 쌓아간다. 이는 모로코의 전통적인 모자이크 패턴과 타일을 작가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자즈의 스타일링으로 착상한 모델들은 자신의 캐릭터 위에 새로운 의미의 캐릭터를 중첩하고 각종 사물들이 또한 중첩하며 새로운 공간의 창조된다. 경계를 넘고 뒤섞이는 포용의 공간이다.

2. 스테레오타입의 파괴

하자즈는 오랜 경험을 통해 모로코 내의 사진계가 자국의 인물과 장소를 서구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시선에서 탈피하고자 북아프리카인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고유의 아랍 전통 패션을 활용한 패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서구의 시선이 서구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국에서 적극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한 하자즈는 이에 대한 극복을 포용적 패션 사진으로 제안한다. 특히 서구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는 전형적 단순 유형의 규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이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의 파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랍 여성들이 착용하는 전통 패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파괴이다. 하자즈의 사진에서 북아프리카 지역 여성 모델들이 착용하고 있는 베일 아이템들은 아랍 국가에서만 착용하는 종교적

인 아이템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채로운 컬러와 다양한 직물을 반영하여 미적인 요소인 패션 아이템으로 작용한다(Amri, 2020). 나아가 마이락스타즈 시리즈에서 남성 벨리 댄서가 베일을 착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하자즈는 베일이 아랍의 여성들만이 착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파괴하고 젠더, 문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둘째, 전통 패션에 간혀 억압된 소극적인 이미지의 아랍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파괴이다. 대표작인 케시 앤젤스에 등장하는 여성 모델들은 히잡을 쓴 채 팔과 다리가 노출되는 대담한 포즈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오토바이에 걸터앉아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는 캐릭터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제각기 서로 다른 자유를 누리는 여성들 그대로를 표현하였다. 하자즈는 이 여성들을 보통의 패션 매거진이나 힙합 공연처럼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는 사진 구도를 적용하여 카메라 속 여성 인물들의 당당함을 극대화해 표현한다. 마이락스타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화려한 모습에서도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의 파괴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셋째, 인간 및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괴이다. 하자즈는 여성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편견을 인식하고 인간 전체에 드리워진 유형 구분을 거부한다. 흑인 남성을 향한 과포화된 인식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자 블랙 댄디의 재탄생과 진화에 대한 메시지를 의상의 프린트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패션을 통해 이러한 고정관념의 파괴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정된 스튜디오가 아닌 아랍 출신 모델들이 거주하는 각 나라의 길거리에서 자연광을 기반으로 촬영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도 파괴하고 있다. 패턴이 화려한 모로코 카펫을 인물의 배경으로 두어 컬러와 질감 대비의 강렬함을 표현한다. 이렇듯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는 국가, 국경, 민족, 문화, 젠더, 직업

등의 경계가 없고 현대 아랍 문화의 시각적 내려티브를 제시하며 북아프리카의 서양적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3. 오브제의 재탄생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노출된 오브제들은 작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탄생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오브제들은 하자즈가 표현하는 포용적 세계관을 물리적 세계에서 시각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포용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오브제의 재탄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을 중심으로 한 오브제의 재탄생이다.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 등과 같은 패션 브랜드의 로고 패턴 플레이를 아랍 전통의상에 접목해 새로운 오브제로 재탄생하거나, 사진 프레임에는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반복적인 배치를 통해 모로코의 전통 패턴과 문화 고유 컬러로 표현하며 재탄생된 이미지를 오브제로 사용한다. 그의 의도에 의해 배치되는 패턴은 적극적으로 의미를 담아 오브제를 재탄생시키고 새롭게 태어난 오브제는 이전의 경계를 무시하며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포용의 메시지를 전한다.

둘째, 사물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 오브제의 재탄생이다. 앞서 많은 연작을 통해서 모로코 현지의 사물들이 사진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을 보았다. MEP 전시회의 일부는 업사이클 소재를 사용하여 메디나의 장인과 공동으로 제작한 신발, 에코백, 수제로 만든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 등이었다(Tudor, n.d.). 형편이 넉넉지 못해 오래된 물건을 재활용하는 모로코의 관행을 작품으로 만들며 모로코 장인, 수공예인, 아프리카 난민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며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렇게 재탄생된 제품들은 사진 촬영에 사용되거나 전시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고 앤디 월루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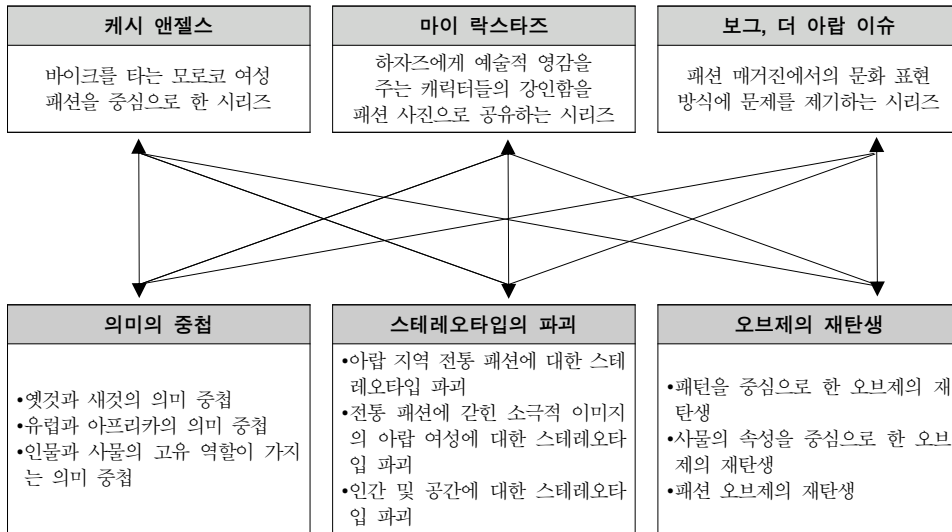


Figure 33. 하산 하자즈의 연작별 패션 사진과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

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음료수병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에 루이비통 로고가 찍힌 방석을 얹어 의자로 재탄생되며, 전시장에서는 패션 사진을 관람하기 위한 소품으로 활용한다. 이전 사물로서의 속성을 벗어나 보다 관용적인 용도로 태어난다.

셋째, 패션 오브제의 재탄생이다. 하자즈는 히잡, 부르카, 니갑, 카프탄, 젤라바, 바부쉬 등과 같은 아랍 전통의상이나 소품에 서양 브랜드 로고를 인쇄하거나, 서구 유명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직물을 사용하여 아랍 전통의상을 재해석하기도 한다. 반대로 비즈니스 슈트나 서양에서 디자인된 패션 아이템에 북아프리카의 고유 이미지로 가득 찬 켈러와 아랍어를 도상학적으로 인쇄하여 의미를 부각하며 새로운 오브제로 재탄생시킨다. 재탄생한 패션 오브제들은 북아프리카 패션으로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유럽 패션으로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적 속성들을 포괄하면서 보다 풍성한 대상을 품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문화가 혼종적으로 공존하는 현시대에 문화적 취향을 함께 공유하며 패션, 디자인, 예술, 사진, 상업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자즈의

패션 사진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33).

V. 결 론

현재 인류가 맞이한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하자즈의 패션 사진을 대상으로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된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표현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중시되는 세계관과 포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결과 포용적 세계관은 서로 다른 다양함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세계의 기원과 발전, 인간 삶의 본질, 철학적, 자연과학적, 사회 정치적, 윤리적, 미적 견해 등에서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라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패션 사진에서의 포용적 세계관을 구분하고 읽어내는 연구 과정의 기반이 되었다.

둘째, 패션 사진은 형식에 따라 연속 사진, 연작 사진, 엮음 사진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세계관 전달의 측면으로 볼 때 사진의 연작과 엮음은 작가의 일관된 세계관 표현과 직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하자즈도 연작 사진을 통해 현대 패션의 포용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2000년부터 연작을 이어오고 있는 하자즈의 패션 사진 중에서 특히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한 케시 앤젤스, 예술적 영감을 주는 캐릭터들의 강인함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마이 락스타즈, 패션 매거진에서의 문화 표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그, 더 아랍 이슈 등 세 가지가 포용적 세계관 표현의 대표 시리즈로 구분되었다. 하자즈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구도, 시선, 의상, 컬러, 소품, 프레임 등을 통해 포용적 세계관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사회 문화적 편견으로 가득 찬 현실을 비틀면서도 그 속에 해학과 유머를 담아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포용의 관점을 패션 사진으로 표현한 하자즈의 이미지에 집중한 결과, 하자즈의 패션 사진 연작에 나타난 포용적 세계관의 표현 특성은 의미의 중첩, 스테레오타입의 파괴, 오브제의 재탄생 등으로 도출되었다. 하자즈의 패션 사진은 패셔너블한 캐릭터, 사물들이 중첩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경계를 넘고 뒤섞이는 포용의 공간이며, 경계가 없고 현대 아랍 문화의 시각적 내러티브를 제시하며 패션, 인간,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의 파괴를 보여준다. 또한 패션 사진에 노출된 오브제들은 작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탄생된 것들이 주를 이루며, 포용적 세계관을 물리적 세계에서 시각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자즈는 다양한 문화가 혼종하는 시대에 문화적 취향을 공유하며 포용적 세계관을 패션 사진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을 밝혔으므로 그의 포용적 세계관을 담은 메시

지는 새로운 대상을 품으며 끊임없는 담론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패션 분야에서 패션 이미지들이 겉핥기식의 가벼운 이슈로 표현되는 현상을 넘어 작가의 세계관을 깊게 다루는 후속 연구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mri, A. E. (2020, November 21). Hassan Hajjaj: Somewhere Between Modernity and Tradition. *MOROCCO WORLD NEWS*. Retrieved November 1, 2021, from <https://www.moroccoworldnews.com/2020/11/326621/hassan-hajjaj-somewhere-between-modernity-and-tradition>
- Baker, T. (2019, May 13). Hassan Hajjaj's dynamic, colourful photography celebrates everyday people and challenges stereotypes around Muslim women. *CREATIVE BOOM*. Retrieved November 11, 2021, from <https://www.creativeboom.com/inspiration/hassan-hajjaj/>
- Barbo, A. M. (2015). *From post-cards to stand-up: Cross cultural representations of the veil in France and the Maghreb*.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Ohio.
- Beom, S. H., & Yim, E. H. (2017). Aritistic expression in the fashion advertising photography of Juergen Teller. *Journal of Fashion Design*, 17(4), 1-17. doi:10.18652/2017.17.4.1
- Brown Eyes. (n.d.). *Artsy*.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www.artsy.net/artwork/hassan-hajjaj-brown-eyes-from-the-series-kesh-angels>
- Carrigan, M. (2018, May 16). A New Fashion Exhibition Aims to Show How the Industry Could Actually Be Inclusive. *OBSERVER*.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observer.com/2018/05/new-orleans-museums-a-queen-within-showcases-inclusive-fashion/>
- Dandy Lion, Evolution of the Black Dandy. (2017, June 16). *THE FALL*. Retrieved October 21, 2021, from <https://thefallmag.com/dandy-lion-the-black-dandy-and-street-style/>
- Das, J. (n.d.). The Rise of photomontage in contemporary Middle Eastern art. *Contemporary Practices*. Retrieved October 21, 2021, from <http://www.contemporarypractices.net/essays/volumeX/TheRiseofphotomontage%20.pdf>
- Day, E. (2018, July 15). Versace Brings Together 54 models In Campaign To "Symbolize Inclusivity". *VOGUE*. Retrieved October 29, 2020, from <https://en.vogue.me/fashion/models/versace-brings-together-54-models-in-campaign-to-symbolize-inclusivity/>
- Farah, S. H. (2020, September 25). Supermodel Imaan Hammam and Artist Hassan Hajjaj Play With Patterns. *VANITYFAIR*. Retrieved November 29, 2020, from <https://www.vanityfair.com/style/2020/09/fall-fashion-with-imaan-hammam-and-hassan-hajjaj>

- an-hajjaj
- Gang of Kesh Part 2. (n.d.). *LACMA*.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collections.lacma.org/node/2110402>
- Goodman, T. (2018, August 6). Beyoncé in Her Own Words: Her Life, Her Body, Her Heritage. *VOGUE*. Retrieved October 29, 2020, from <https://www.vogue.com/article/beyonce-september-issue-2018>
- Gouveia, A. (2020, February 26). Vogue Arabia Celebrates Third Anniversary With Three Middle Eastern Legends. *VOGUE ARABIA*. Retrieved October 29, 2020, from <https://en.vogue.me/culture/vogue-arabia-third-anniversary-pop-arabia-yousra-assala-sheikha-hoor/>
- Gypzee Bikin. (n.d.). *Artsy*.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www.artsy.net/artwork/hassan-hajjaj-gypzee-bikin-2>
- Hammoudi, J. (2017, November 11). Meet Hassan Hajjaj, the ‘Warhol of Marrakech’ Who Shot Hip-Hop Star Cardi B. for New York Mag. *artnet news*. Retrieved November 20, 2020, from <https://news.artnet.com/art-world/photographer-hassan-hajjaj-cardi-b-1160474>
- Haskell, R. (2020, February 3). How Billie Eilish Is Reinventing Pop Stardom. *VOGUE*.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www.vogue.com/article/billie-eilish-cover-march-2020>
- Hassan Hajjaj Dior XL 2012. (2020, January 17). *Fotografiska*.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news.cision.com/fotografiska/i/hassan-hajjaj-dior-xl-2012,c2737214>
- Hassan Hajjaj, Mr M. Toliver, 2012/14. Courtesy of the artist and Vigo Gallery, London. (2020, January 20). *ELEPHANT*.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elephant.art/cock-balls-artists-ask-means-man-art-and-masculinity-17022020/hassan/>
- Hassan Hajjaj: My Rock Stars. (n.d.). *WORCESTER ART MUSEUM*.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www.worcesterart.org/exhibitions/hassan-hajjaj/>
- Hassan Hajjaj on Art, Colour, Morocco, Keshangels, Rock Stars, His Journey and Bringing People Together. (n.d.). *ARTBREATH*.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artbreath.weebly.com/hassan-hajjaj.html>
- Hassan Hajjaj’s rockstar portraits-in pictures. (2012, October 25). *The Guardian*.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www.theguardian.com/world/gallery/2012/oct/25/hassan-hajjaj-portraits-pictures>
- Highet, J. (n.d.). Hassan Hajjaj’s Hot Remix. *AramcoWorld*. Retrieved October 1, 2020, from <https://www.aramcoworld.com/Articles/April-2020/Hassan-Hajjaj-s-Hot-Remix>
- Jackman, J., & Kane, A. (2017, January 30). Meet Hassan Hajjaj, the ‘Andy Warhol of Marrakech’. *DAZED*. Retrieved October 20, 2020, from <https://www.dazeddigital.com/photography/article/34521/1/meet-hassan-hajjaj-the-andy-warhol-of-marrakech>
- Jo, G. J. (2006). *철학, 예술을 읽는다* [Philosophy, read art]. Seoul: Dongnyok.
- Jónsdóttir, E. J. (2017). *Multiculturalism and creativeness: Impact of a multicultural background on crea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celandic Academy of the art, Iceland.
- Jung, H. C. (2017). *포용의 힘* [The power of inclusion]. Seoul: TROJAN HORSE.
- Kim, J. Y., & Lee, K. H. (2004). A study on expression of pluralism in contemporary fash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6(1), 9-16.
- Kim, S. Y. (2017). Diversity and value of the models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3(2), 51-65.
- Komar, M. (2015, September 28). H&M Features Its First Muslim Model In A Hijab. *BUSTLE*. Retrieved November 4, 2020, from <https://www.bustle.com/articles/113340-hm-close-the-loop-video-features-muslim-model-in-a-hijab-its-an-inclusive-move>
- Lee, M. G. (2016). The spirit of tolerance in modern French philosophers. *Journal of Human Studies*, 31(-), 83-112.
- Lord, C. (2012, September 17). My Rock Stars: Hassan Hajjaj’s new photography show. *The National*. Retrieved November 1, 2020, from <https://www.thenationalnews.com/arts-culture/art/my-rock-stars-hassan-hajjaj-s-new-photography-show-1.585247>
- Malicious Look. (n.d.). *MutualArt*.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www.mutualart.com/Artwork/Malicious-Look/CBCEF440CBDBD1F1>
- Marques Toliver. (n.d.). *Artsy*. Retrieved September 28, 2020, from <https://www.artsy.net/artwork/hassan-hajjaj-marques-toliver-1>
- Marszalek, M. (2020, June 2). Art principles with Hassan Hajjaj. *CAN PEP REY*. Retrieved November 15, 2020, from <https://canpeprey.com/blogs/magazine/yes-it-s-hassan-hajjaj>
- Mitter, S. (2019, October 9). Hassan Hajjaj Turns Moroccan Cliches Into London Cool.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October 2, 2020, from <https://www.nytimes.com/2019/10/09/arts/hassan-hajjaj.html>
- Morocco a-go-go: the eye-popping visions of Hassan Hajjaj-in pictures. (2019, September 25). *The Guardian*. Retrieved November 20, 2020, from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gallery/2019/sep/25/morocco-a-go-go-the-eye-popping-visions-of-hassan-hajjaj-in-pictures>
- Morris, D. (1979). *Manwatching: A field guide to human behavior*. New York: Harry N Abrams Inc.
- No, S. S. (2016). Philosophical counseling as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Worldview interpretation” seen through “Socratic Dialogue”. *Researches in Contemporary European Philosophy*, 40(40), 1-36.
- Okwodu, J. (2020, June 12). The #VogueChallenge Is More Than a Hashtag. *VOGUE*. Retrieved October 5, 2020, from <https://www.vogue.com/article/vogue-cover-challenge-more-than-hashtag>
-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n.d.). tolerance. *Oxford Learner’s Dictionaris*. Retrieved October 29, 2020, from <http://www.oxf>

- 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tolerance?q=tolerance
- Park, J. S. (2012). *A study on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wave feminism in fashion photograph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Park, J. S., & Ha, J. S. (2015). A study on female image of the third wave feminism in fashion photograph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1), 33-41. doi:10.5805/SFTJ.2015.17.1.33
- Park, S. Y. (2020). A study on 'ugly' fashion case studies focused on diversity in popular culture.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21(6), 187-204. doi:10.47294/KSBDA.21.6.15
- Rao, M. (2017, December 6). These Portraits of Moroccan Hipsters Are More Nuanced Than They Look. *HUFFPOST*. Retrieved November 20, 2020, from https://www.huffpost.com/entry/hassan-hajjaj-portraits_n_5807750
- Reginato, J. (2020, March 23). Spin Doctors. *VANITY FAIR*. Retrieved November 20, 2020, from <https://www.vanityfair.com/style/2020/03/spin-doctors-the-top-djs-in-the-world>
- Rifkin, J. (2015). *Entropy* (Lee, C. H., Trans.). Seoul: Sejong Institution.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Sansom, A. (2019, October 7). Maison Marocaine: Hassan Hajjaj's first solo retrospective. *1854*. Retrieved November 20, 2020, from <https://www.1854.photography/2019/10/hassan-hajjaj/>
- Sawa, D. B. (2018, May 23). Hassan Hajjaj's best photograph: Kesh Angels, girl biker gang of Morocco. *The Guardian*. Retrieved October 2, 2020, from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8/may/23/hassan-hajjaj-s-best-photograph-kesh-angels-girl-biker-gang-of-morocco>
- Smith, R. (2014, February 27). Hassan Hajjaj: 'Kesh Angel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October 20, 2020, from <https://www.nytimes.com/2014/02/28/arts/design/hassan-hajjaj-kesh-angels.html>
- Tudor, E. (n.d.). Hassan Hajjaj's Empowering Pop-Art. *NOWFASHION*. Retrieved November 11, 2020, from <https://nowfashion.com/hassan-hajjaj-s-empowering-pop-art-28589>
- Tzenkova, A. (n.d.). KESH ANGELS BY HASSAN HAJJAJ. *TRENDLAND*. Retrieved October 5, 2020, from <https://trendland.com/kesh-angels-by-hassan-hajjaj/>
- Vogue, The Arab Issue Hassan Hajjaj. (2020, January 17). *Fotografiska Stockholm*. Retrieved November 20, 2020, from <https://www.fotografiska.com/sto/nyheter/vogue-the-arab-issue-hassan-hajjaj/>
- Wagenseil, S. (2020, August 21). Hassan Hajjaj is Morocco's iconic pop-art photography star. *NBGA*. Retrieved June 1, 2020, from <https://nobasicgirlsalloved.com/hassan-hajjaj-is-moroccos-iconic-pop-art-photography-star/>
- Wender, J. (2014, January 24). KESH ANGELS. *THE NEW YORKER*. Retrieved October 29, 2020, from <https://www.newyorker.com/culture/photo-booth/kesh-angels>
- Wolters, A. M. (1989). On the idea of worldview and its relation to philosophy. In: Marschall, P. A., Griffioen, S., Mouw, R. J. (Eds.), *Stained Glass: Worldviews and Social Science* (pp. 14-25).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Yang, S. H., & Han, S. Y. (2008). *패션과 영상* [Fashion & Video]. Seoul: Sookmyung womans university.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세계관. [world view].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Retrieved October 1, 2020,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84%B8%EA%B3%84%EA%B4%80>

An Inclusive World View in Hassan Hajjaj's Fashion Photography

Moon, Hye Won · Joo, Bo Rim⁺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ashion photography for the series of Hajjaj and analyzes the stories related to subjects, expression modes. Hence, this research concretely derives the building plans of inclusive world view that can be figured out through the fashion photography in Hajjaj.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gagement can express the world view with messages such as the culture, preference, value, social position, class of people in fashion beyond the role of reenactment in fashion photography. Additionally, several expressions with the inclusive world views have been captured. Second, Hajjaj's photography in terms of effective series to express the photographer's consistent worldview would be distinguished to representative 3 series such as 'Kesh angels', 'my rockstars' and 'vogue, the Arab issue'. Thir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for the inclusive world view in Hajjaj's fashion photography had been derived as the overlay of meanings, destruction of stereotype, the rebirth of the object, etc. Hajjaj's fashion photography is the inclusive spaces where fashionable characters, objects had been overlapped, crossing boundaries, and mixed in new spaces. In addition, these borderless photos also suggest visual narratives of modern Arab cultures and show destruction of stereotypes for fashion, human beings, spaces.

Key words : Hassan Hajjaj, inclusive world view, fashion photography, fashion image

